

어린이 책꽂이



▲여름이 좋아=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글을 써온 프랑스 작가 민느의 신간. 여름방학을 맞아 한 가족이 시골마을로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마당에 누워 별자리를 관찰하고, 개미떼와 나뭇잎을 관찰하기도 한다. 학원과 공부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에 대해 알게 해준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형제가 간다=많은 구석 하나 없는 아홉 살 경호와 열 살 봉호, 두 형제가 집과 학교를 오가며 보이는 좌충우돌 사건들을 담고 있다. 형제지만 상반된 두 아이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가족과 친구, 타인을 손쉽게 단정 짓고 편견으로 대하는 일이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버리는지 깨닫게 한다. <창비·8천500원>



▲칭기즈 칸=세상의 반을 정복한 몽골 제국의 위대한 왕=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몽골인의 역사서 '몽골비사'를 바탕으로 몽골 초원의 북동지방에서 태어나 훗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 칸의 생애를 재구성했다. 잔혹한 정복자로 알려진 칭기즈 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들여본다. <미래아이·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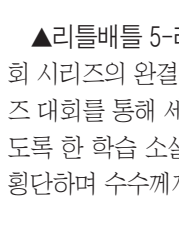
▲한밤중에 학교에서=일본 작가 가와바타 히로토가 쓴 동화. 학교를 배경으로 처음에는 마치 스텔러처럼 흥미진진하게 시작되다가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따뜻한 감동을 안겨주는 서정적인 모험담이다. 도와 달라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로 달려온 초등학교 3학년 유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개업나무·9천원>



▲동지상자-사람이 만든 새들의 집=독일 사람 베를레프슈 남작이 동지상자를 만들어 오늘 날까지 전한다는 이야기로 만든 그림책. 2007년 일본 아동문학자협회 '어린이를 위한 감동 논픽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재일교포 3세 동화작가 김광이 쓴 책이다. 부록으로 '동지상자 만들기'가 들어있다. <한솔수북·1만3천원>



▲흥부네 동개=현대적인 시각으로 옛이야기를 새로 쓰는 작가 이형진씨의 세 번째 그림 이야기책. 흥부네 식구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 버린 짐박이 캐리커를 통해 자칫 어렵게 느껴지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풀어냈다. <느림보·9천800원>



▲리틀베를 5-리를 탐험대, 세계의 배꼽을 찾아라! =리틀베를 사회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세계 곳곳을 탐험하며 지구 문제를 푸는 퀴즈 대회를 통해 세계의 기후,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 학습 소설이다. 두 라이벌 소년은 유럽·오세아니아 대륙을 횡단하며 수수께끼 같은 미션 베를을 벌인다. <휴먼이·9천원>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질까? =집을 떠나는 삼형제가 자신만의 개성으로 도시를 완성해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 삼형제의 모험을 통해 마을과 도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해간다. 문장에 그림을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주니어중앙·1만1천원>

음악, 그 영욕의 역사를 벗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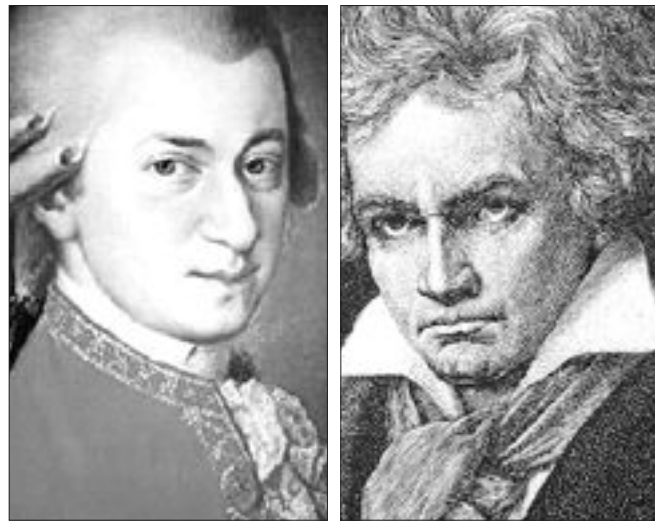
음악과 권력

베로니카 베치 지음



많은 알려지다 시피 작곡가 바그너는 극심한 반유대주의자였다. 그는 '예술과 혁명'이라는 책에서 유대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혁명의 와중에 유대인들이 시민권과 선거권을 확보한 사실에 거세게 반대했다. 그의 음악을 숭배한 아돌프 히틀러의 사상에 따르면 '음악은 본질적으로 대중적인 효과가 있고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격양시키며, 그로 인해 불법과 합법,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꿰뚫고 있었던 나치와 히틀러는 음악을 일상생활에 안배했고, 음악가들을 잘 활용했다. 그결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푸르트 벵골러 등 유명 음악인들의 이름은 나치와 함께 오르내린다. 음악은 사회적 과정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던 독일의 음악학자 게오르크 크네플러는 "재능있는 음악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흐름을 훨씬 더 간파했다"고 말한다. 음악과 정치, 음악과 권력은 뿔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모차르트, 베르디, 슈만 등 유명 작곡가의 전기를 다수 집필한 독



모차르트(왼쪽)와 베토벤.

일의 음악학 전문가 베로니카 베치 지은 '음악과 권력'은 음악은 권력을, 권력은 음악을 이용한 생생한 사례를 유명 작곡가들의 삶과 함께 써내려간 책이다. 특히 월간 '객석'에서 오랫동안 클래식 관련 기사를 써왔던 노승림씨가 번역을 맡아 다소 난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번역한 점이 눈길을 끈다.

책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중요한 변혁기에 모차르트, 헨델, 슈만, 말러 등 30여명의 유명작곡가들이 자신들의 음악과 더불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 찬

찬히 보여준다.

오스트리아에서 1848년 혁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왈츠의 황제' 슈트라우스는 바라케이드 노래를 작곡하는가 하면 공연에서 '라 마르세예즈'를 연주했다. 그러나 혁명이 진압된 이후 궁정음악가로 진입할 기회를 잃자 슈트라우스는 노선을 바꿨다.

그는 러시아 황제를 찬양하는 행진곡을 지어 황제의 환심을 사고 이를 미끼로 오스트리아 국왕에게 접근했다. 이후에도 국왕이 암살될 위기를 모면하자 '구원행진곡'을 지어 자치며 '변절'의 길에 들어섰다.

베토벤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열렬한 지지자로 자신의 교향곡 3번에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스스로 독재자가 된 나폴레옹에 분노를 느껴 이를 없애 버렸고 '헬링턴의 승리'를 작곡해 나폴레옹을 조롱했다.

저자는 음악은 인간 감정의 깊숙한 곳을 뒤흔드는 위력 때문에 정치에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같은 이유로 정치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한다고 말한다. 작곡가는 이에 맞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깊숙이 음표로 새겨넣기도 하지만, 권력에 쉽게 투항하기도 한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책은 또 미국 공산주의 사냥인 '매카시 열풍'에 휩쓸렸던 레너드 번슈타인, 독재자 스탈린의 변덕에 따라 음악가로의 삶이 좌우 지었던 쇼스타코비치, 누구보다 왕의 궁중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모차르트 그리고, 정치권력의 희생자였던 한국의 윤이상까지 다루고 있다. <컬처북스·2만8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오지에서 전하는 '희망 보고서'

세상끝에서...

박상주 지음



20여 년간 일간지 기자로 전국 방방곡곡, 세계 구석구석을 누빈 박상주씨가 지구 끝의 오지에서 현지인과 함께 호흡하며 웃음 짓는 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이 전하는 '희망 보고서'를 '세상 끝에서 삶을 추측다'로 엮어냈다.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지, 사람의 발길이 닿을까 싶은 곳에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웃음 짓는 한국인들이 있었다.

페루 쿠스코의 인디오들에게 한국의 도에 기술을 전수하여 현지 문화 상품을 개발한 이틀, 남미 지역 불우청소년들을 학교로 이끌어 내일의 꿈나무로 지도하는 수녀님, 두 아이를 데리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봉사 활동을 하는 부부, 메마른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우물을 파는 선교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 노인들을 찾아가 영정 사진을 찍는 사진사, 차도 달지 않는 필리핀 오지 마을에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는 사람들...

남미에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중흥무진으로 움직이며 10여 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실패와 열정,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다.

저자는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리포터의 시선으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오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행자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북스코프·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실험을 통해 본 '아이 대탐구'

아이의 사생활

EBS 제작팀 지음



지난해 2월 방송돼 화제가 되었던 EBS 다큐프라임의 인간탐구 대기획 5부작 '아이의 사생활'이 책으로 엮여 나왔다.

'아이의 사생활'은 철저한 사전조사, 국내외 최고전문가와 심층인터뷰 및 공동연구를 거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을 밝혀낸 획기적인 기획이었다.

책은 철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과학을 아우르는 40여 가지의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어른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우리 아이의 성격과 지능, '남과 여의 진실', '도덕성'의 위력, '자존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숨겨진 재능인 '다중지능과 감정지능' 등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개했다.

또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아이의 환경과 개별적 차이를 고려한 자녀양육의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두뇌 발달 포인트와 엄마의 양육플랜', '아이의 성별에 따른 엄마의 대화 표현법', '다중지능 영역 체크리스트', '자아존감을 키우는 공감의 대화법' 등을 보너스 페이지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아동심리학 관련 이론이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팁을 만들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배려했다.

<지식채널·1만6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소설가들이 털어 놓는 '연애 이야기'

설렘

김 훈 외 13인 지음



내로라 하는 소설가 열네 명이 '사랑'을 주제로 쓴 내밀한 에세이집인 '설렘'이 출간됐다. 시인들의 사랑 에세이인 2007년 작 '떨림'의 후속편.

김훈, 박병신, 양귀자, 이순원 등 중견 대표작가들을 비롯해 이명랑, 서하진, 은미희, 송경아에 이어, 김이은, 김선재, 김규나, 김나경 등 2000년대 이후 혜성처럼 등장해 문재성 있는 주제의식과 독특한 문체로 독자 사랑을 받은 신진 젊은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전적이거나 그럴 개연성이 높은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전작 '떨림'이 시어 같은 문체로 서정과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면, '설렘'은 이 시대 대표 이야기꾼들다운 입담으로 보다 솔직하고, 공감 배제한 연애담을 들려준다.

소설가들의 감수성 예민한 젊은 날, 교통사고처럼 닥쳐와 송두리째 삶을 뒤흔들고 간 사랑에 대한 기억과 단상, 그리고 철학이 펼쳐진다.

첫사랑, 첫사랑, 짝사랑, 스쳐간 사랑, 젊은 날의 사랑의 추억 뿐 아니라 주변과 이웃을 둘러보며 깨달은 황혼의 사랑, 다시 찾은 사랑, 의붓자식에 대한 애뜻한 기린 정까지도 가지각색의 사랑 스펙트럼을 통해 이 시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하 일람(351203-1581116)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원지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원지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상속한정승인공고
김 오현(871024-1640217)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원지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원지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명리철학 수강생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연수일정(2009년 제3기)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8. 31(월) 9:10, 오후반 2009. 8. 31(월) 13:40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09년 제 9기)
구분 일정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토요일 2009. 9. 5(토) 09:10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사무소
(용봉동 하이마트 옆 육교 바로 아래)
매도, 매수 ☎ 011-641-0925, 상담환영 ☎ 062)515-4985